

제3권 (7단원 : 은혜로운 교회 생활)

(제39과) 충성된 봉사 생활

- 본문 : 베드로전서 4:7-11
- 요절 :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 찬송 : 찬송가 370장(새찬송가 330장), 찬송가 375장(새찬송가 331장)

사람은 외딴 섬이나 산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원이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간혹 교회를 떠나서도 제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기성 교회를 배척하는 무교회주의자들조차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각종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바람직한 봉사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받은바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하신 말씀은 모든 성도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각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함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 타국에 가는 주인에게서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은 세 종이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여 갑절의 이윤을 남겼으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계하게 되었을 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 본 주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 받았던 그대로 한 달란트를 내어놓았으므로 주인에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 25:14~30)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를 보시지 않고, 받은바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였는가를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 받은바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므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사랑과 겸손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엡 4:4) 하심으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인 것을 가르치며, 이와 동시에 “몸은 한 지체 뿐 아니요 여럿이니”(고전 12:14)라고 하심으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양한 직분을 맡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까닭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하신 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하신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받은바 은사와 직분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 중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소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내세우며 다툰다면 그 지체들은 제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할 따름입니다(고전 12:15~27).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2~4) 하신 말씀대로 사랑과 겸손의 자세로 교회 봉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각기 은사와 직분에 따라 봉사할 때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명예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주님은 결코 그러한 봉사를 열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자기들의 땅을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땅값 전부라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가 징벌을 받아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전재산을 교회에 바친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칭찬을 목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참된 봉사를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봉사에 열심을 다해 헌신하던 중 병들어 죽었으나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행 9:36~42). 다비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녀의 봉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에 임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벧전 4:11).

봉사 생활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은바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사랑과 겸손으로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